



이용섭 광주시장이 23일 오후 동구 금남로 시청업무캠프1관에서 렉스소프트, 비투엔, 아이티아이즈 등 AI 유치기업 10개사와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공지능 기업들, 광주로 몰려온다

시, 헬스케어·데이터 등 10곳과 업무협약...“세계적 AI 기업 키워 일자리 창출할 것”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사업을 하려는 AI기업들의 광주행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23일 인공지능창업캠프 I에서 렉스소프트, 비투엔, 아이티아이즈, 오든, 웨인힐스벤처스, 이모라이브, 인디프로그, 체인브리지, 투디지트, 페어립에듀 등 인공지능 관련 10개 기업과 광주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136-145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업들은 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을 통해 광주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임차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렉스소프트 원성호 대표이사, 비투엔 조광원 대표이사, 아이티아이즈 이성남 대표이사, 오든 황용희 대표이사, 웨인힐스

벤처스 이수민 대표이사, 이모라이브 이완완·신범식 대표이사, 인디프로그 서지희 대표이사, 체인브리지 허준호 대표이사, 투디지트 박석준 대표이사, 페어립에듀 이범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서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사업화 추진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및 광주지역 신규 일자리 창출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광주 인공지능 전문분야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과 기술·정책 자문 등 수행 ▲인공지능 전문분야 인재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광주법인 또는 지역사무소 설립 추진 ▲AI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기업홍보 ▲인공지능 분야 전문인력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기획·추진 등이다.

기업 대표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 발전과 더불어 기회를 제공한 광주에서 전문 인력양성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인공지능 기업 135개 중 94개사가 이미 광주에 법인이나 사무소, 연구실을 개소했다”면서 “광주시는 광주에 동지를 둔 AI기업들이 계속 머물 수 있는 지속과 방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찾아오게 하는 방안, 시민들이 인공지능 중심도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방안 등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정비 나서

민간인 희생터·묘지·위령탑·격전지 등 42곳

전남도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 관련 42개소의 역사유적지를 정비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순사건이 발발한지 74년이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역사의 아픈 흔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잊히고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 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가 지난 2월부터 시·군에 산재한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피해가 컸던 여수, 순천을 비롯해 6개 시군에 42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간인 집단 희생터 23개소를 비롯해 격전지, 주둔지와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묘지, 위령탑, 위령비 등으로 유형이 다양했다. 조사한 역사유적에 대해 4월까지 명칭, 위치, 보존 상태와 여순사건과의 관계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최종 작성 현황은 대내외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추념식, 전시회, 견학 등 교육문화사업과 연계할 방침이다. 또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3억4000만원을 들여 안내판 설치, 주변 정비, 시설물 보수 등 유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연도별 국비 확보와 역사유적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여순사건 관련 유적이 지역 곳곳에 있음에도 소홀하게 관리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아쉬웠다”며 “조사된 유적지의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예술인 보살핀다

광주시, 문화재단 내 ‘보듬소통센터’ 기능 확대
법률·노무·의료·심리상담 등 복지 서비스 강화

광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기존 예술인 복지창구를 스트레스상담·치유, 창업·창작·권익보호에 관한 행정·법률·노무·복지·의료·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지원해 소통창구를 확대한다. 창작·기획, 세무·회계, 단체설립·창업 분야는 전문가와 1대1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예술상담실 ‘ON:결’을 정기 운영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예비예술인 및 신진예술인 등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또 광주 예술인들의 활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광주예술인 아카데미’를 새롭게 운영한다. 아카데미는 예술인 권익보호교육, 커리어 창업교육, 후원매개양성 등 교육프로그램으로 예술인들의 기본역량과 자립성, 공공지원 접근성 제고에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시는 특히 예술인 복지의 체계적인 증진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3개년(2023-2025) 광주 예술인 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말 구성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관합치 태스크포스(TF)도 본격 운영한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9월 ‘예술인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 안 마련을 통해 실효성 있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술인 권리보장 정책 발굴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실정, 창작활동 어려움,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했으며, 지난 12월 확대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듬소통센터 내에 예술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발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창작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지난해까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예술인 복지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최종 심사

2016년 국제안전도시 최초 공인 후 5년 성과 평가 등
도로교통사고예방·노인 낙상 등 8개 분야 계획 발표

광주시가 국제 안전도시 재공인에 도전한다. 광주시는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최종심사를 24일부터 이틀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안전도시(ISCSC)는 사고에 의한 부상·사망 등 인명피해를 줄여 도시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다. 현재까지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SC-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스웨덴 스톡홀름)가 정한 7개 기준에 따라 공인을 획득한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 43개국 433개 도시다. 이번 심사는 2016년 최초 공인된 이후 5년간의 노력에 대해 평가받는 것으로, 온라인 회의체널인

Zoom 시스템을 활용한 온·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사에는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SC)의 장인 테일 헨스 등 국외 3명, 국내 2명의 심사위원과 안전 관련 6개 분과위원, 국내·외 네트워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여한다. 본 심사 첫째 날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환영사 및 광주시 총괄보고서 시작으로 손상감시체계, 도로교통사고, 노인낙상 등 4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둘째 날에는 자살예방, 폭력예방, 지역사회 시민 안전 우수사례, 장기발전 방안 등 4개 분야 심사와 공인센터 총평, 재공인 여부 발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는 특히 재공인을 목표로 해마다 안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실적과 국제안전도시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5개 자치구와 연계해 도로교통사고, 노인 낙상, 자살, 폭력예방활동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안전증진 프로그램 내실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신동하 광주시 안전정책관은 “이번 국제안전도시 재공인을 통해 광주시가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안전 프로그램과 인프라, 협력체계 등 안전도시 3박자를 갖춘 안전모범도시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